건설근로자공제회 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8.(수) 05:00 (2026. 11. 18.(수) 석간)

건설근로자공제회,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 방문

- 국가 핵심 메가프로젝트 현장 찾아 건설노동자 격려 및 현장 의견 청취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는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노동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노동자 및 사업주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대규모 반도체 건설 현장의 공사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건설노동자와 사업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일 출력인원 2만여 명 이상, 협력업체 150여 개가 참여하는 대규모 건설현장으로,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메가프로젝트이다.

장건 이사장은 건설노동자들의 출근이 시작되는 오전 6시 30분부터 현장을 찾아 이른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는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출퇴근 집합장에 설치된 전자카드 단말기 운영 현황과 전자카드 태그 및 모바일 앱 이용 실태를 직접 확인하며 올바른 전자카드 사용을 당부하였다.

이어 SK에코플랜트 임원진과의 차담회를 통해 공사 추진현황을 공유받고, 대규모 건설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퇴직공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건설노동자와 사업주가 참여하는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전자카드 사용 및 퇴직공제제도 운영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공제회 복지사업에 대한 의견을 비롯해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공제회 장건 이사장은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건설노동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공제회도 국가경제와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사업관리부	책임자	부 장	나세준 (02-519-2071)
		담당자	주 임	이선종 (02-519-207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